일체가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기에 찰나생활이면서 공했다

☞ 21면에서 계속

도 세포가 있는가 하면 자력도 있고 전력도 있죠. 광력도 있고 통신력도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디디는 것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끕니다. 땅도 자기네 힘대로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디딜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다니는 그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모든 거, 모든 일체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또 천체물리학이나 의학이나 다 우리 한마음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어떤 스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통지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승려 노릇을 하면서도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벌써 관에다 넣어서 다 해 놨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나가서, 예전에는 산소를 썼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딛고 가는데 벌써 요 한 마디, 발가락 요 첫 마디에서 벌써 지하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이 되는 것만 도가 아니라 통신이 됐으면 볼 줄 알고….' 하는 것이 이게 심안의 눈이에요. 이 속에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줄 아시지 말고, 시계추가 여기 갔다고 해서 여기 간 줄 알지 마시고, 저기 갔다고 해서 저긴 간 줄 알지 마시라 이거예요. 온 누리에 눈이니까. 여기인들 눈이 없겠습니까마는 이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통신이 가면 통신이 오기 때문에 심안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는 우측 대뇌에서는 모든 거를 합리적으로 꾸려 나가면서 대의적으로 광대한 법을 탁 가르쳐 주죠.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딱 섰으면 여기가 그대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혈액이나 산 혈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데를 찾아서 한다고 해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다가 여기서 통신이 돼서 딱 서면 그 자리가 그냥 법이야. 그 자리가 좋은 자리야. 나쁜 데도 좋은 데라고 딱 지적하면 좋아지고, 자리가 좋은데도 사람이 아주 괘씸스러워서 수십만 명의 생명들을 해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산소 좋다면 자기가 그걸 뺏고, 자기 산소로 묻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저건 참 안되겠다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데다 썼어도 그 집안은 아주 안됩니다.

그러니 그 한생각의 도리가 얼마나 깊고 깊고 또 깊어서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말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법 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 도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냥 부처님 법이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조차도 붙일 수 없는 자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되 함이 없다 하는 거,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한테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이 집어먹어서 그만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면 내가 집어먹어서 또 없다구요. 그러니 누가 말을 했으며 누가 들었느냐고 말할 수밖에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찰나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에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체가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찰나 생활이면서 공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 하면, 나쁜 꿈을 꿨다 하더라도 '나쁜 꿈을 꾸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좋은 꿈을 꾸고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지.' 한다면 그게 그대로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머물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죠? 그게 운전과 같은 것도 되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 '좋게 한 것도 거기지. 감사하구나.' 이렇게 일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살림살이라면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그대로가 참선이요 행선이요 길입니다.

그렇게만 지낼 수 있다면 여여함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오르고, 내 집안이 다 망한다 뭐, 송두리째 바가지 들고 얻어먹으러 나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원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는 능력은 뭐냐.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오르고
내 집안이 다 망한다 뭐, 송두리째 바가지 들고 얻어먹으러 나간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원력입니다.

허! 그것도 코웃음 나는 거죠. 왜냐. 그렇게 없는 걸로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신장, 호법신, 수호신 뭐, 모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와 가지고 다 살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죠, 나같이. 여러분이 안 주면 안 먹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하하하. 또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그냥 다 같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부처님, 부처님!" 하고 하도 밖으로 형상만 찾길래 그냥 내다가 도끼로 부숴 버리고 나니까 죄들 안 온대요. "안 오면 그만둬라. 내가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뼈다귀 끓여 먹고, 또 부처님 이름 팔아서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해서 먹고 산다면 혓바닥을 깨물고 죽어버리지." 하고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보니까 그냥 그냥 나오셨대요. 왜 나왔느냐고 그랬죠. 그랬듯이 내가 '신도들이 많이 와야겠다, 또 많이 걷어야겠다' 그런 걸, 부처님을 팔아서 그런 걸 많이 해서 뭘 합니까? 따지고 보면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가고,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돈도 가져가지 못하고, 허허, 집도 가져가지 못하고 내 몸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그렇게 근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남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또 더불어 같이 돌아가면서 너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시간 약속 지켜라. 또는 의리를 지켜라. 도의 또 질서도 지켜라. 우리가 인간 된 도리를 다 지킨다면, 그것도 거기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지킨다면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뭐, 이런 거, 사제법이니 십이인연법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아도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원심력이 충만하면 원통력을 굴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이걸 일일이 따지자면, "올바르게 보아야 한다.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 올바르게 정진해야 한다." 이 소리를 다 하려면, 이 소리를 다 듣고 복잡하게 하려면 언제 공부해 나가십니까?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오신통의 재료가 충만히 여러분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거를 쓸 때는 감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이나 지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공부가 여간 대단한 공부가 아닙니다. 참 광대무변한 법이죠. 그러니 어떠한 문제로 우리가 이익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수만 명에 피해가 생긴다면, 내가 여러분을 이익하게 하고 해롭게 안 하려는 마음으로 끌고 가면 그게 딴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다 할 일이란 말입니다.

누가 갖다 줍니까? 누가 뺏어 갑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뺏어 가거나 뺏기지 않고 또 갖다 주는 게 없으니 자작! 이리로 가도 이리로 간 것이고, 저리로 가도 저리로 간 것입니다, 이 머리의 두뇌가. 그러니 이것을 (머리를 만지시며) 통틀어 여기다가 놓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놓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다 놓게 됨으로써 스스로 무심, 그대로 무심도가 돼서 그대로 그 한 소식을 알고 있느냐 해서 "할!" 이러기도 하고, 주장자를 들어서 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주먹을 내밀기도 하고, 벽력같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더란 얘깁니다.

옛날에 서산 대사가 공부하실 당시의 얘기입니다. 서산 대사님이 공부하러 가실 때에 쌀을 한 짐 마차에 싣고 가다가 보니깐 아, 소가 꼬꾸라지더랍니다, 가는 도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내가 지고 가서 사시마지 때에 공양을 올리려고 했던 쌀인데 어째서 내가 지고 가지 않고 소에게다가 밀어 던졌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쌀을 짊어지고 다시 20리 밖을 나와서 20리를 다시 쌀을 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남한테다 떠넘기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공양을 천 일을 올리다가 보니까 천 일째 공양을 다 올리고 마지막에 관(觀)하고 있는데 별안간, 일곱 사람이 총을 겨누면서 그냥 쏘더랍니다. 쏘는 그것을 이렇게 돌아다보니깐, 너무 우스워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얼마나 크게 웃었던지 말입니다, 중국 대륙에 전부 들렸답니다, 그 소리가. 허허허. 그래서 임금이 말입니다, 국사를 두고 쓰는데 "저 소린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조선의 스님이 깨치는 순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응?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서산 대사가 그렇게 깨쳐서 돌아다보니 아무 간 곳이 없더라는 거야. 그 생각 한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깨쳤고, 어떻게 했길래 일곱 명이 총을 쏘고선 그냥 없어졌는지…. 그 일곱 명은 누굴까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또 각각 보시겠지, 허허허. 저 칠성(七星) 별도 각각 보시겠죠? 그렇게 각각 보니까, 그것도 각각 보시겠죠. 우리 마음속에서 태양도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서산 대사께서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셔서 아무리 그 어떠한 게 와도 눈도 깜짝 안 했답니다. 그건 왜냐? 나 하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나 하나 버린다면 구태여 그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 집 새로 짓고선 도둑이 들었죠. 그래 저녁에 그랬습니다. "얘야!" 그때 요만한 처녀 아이가 밥을 했었어요. 여기 집도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도 선생님이 오늘은 오실 것 같다. 그러니 문을 꼭꼭 잘 잠가라." 그러니까 "아니, 어떤 선생님이 오십니까?" 그래. 하하하. 그래서 그랬죠. "도 선생님 말이야." 그러니까 "도 선생님이 누구세요?" 그래. 그래서 "아, 와서 가져가면 도 선생이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깔깔대고 웃어요.

그래서 그날 딱 잠그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말해 놓고 내가 문을 열어 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하실에 보일러를 땔 때에 내가 땠으니까, 내가 보일러쟁이니까 새벽에 추우니깐 내려가서 그 보일러를 올리고선 그러고는 변소에 갔다가 그 변소 문을 잠그지 않고는 그냥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죄임에 자기가 빠지는 거지. 그러게 문을 아무리 막아 놔도 안 돼요. 아주 차라리 열어 놓는 게 낫지.

그래 인제 열어 놨더니 단지 문만 떼어 내 놓고 그냥 들어오신 거지. 그런데 내가 보일러에 불을 넣고선 떡 방에 들어와서 팔장을 끼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을 사르르르 열고 들어와요, 4시쯤 됐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깐 아주 계란색 잠바에다 계란색 내리다지로 해 입었어요. 하하하. 그러곤 발소리도 안 나요, 농구화인데. 착착 딛는데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래 들어오길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허허허, 그러니까 의아해하더라고. 너무 난감해, 아주!

그런데 그때 내 시계를, 옆에다 풀어 놓고 있었던 그것밖에는 없는 거야, 인제.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계를 얼른 집어 주면서 하는 소리가 "에이, 사람 놀라게 뭐 하러 이렇게 드릴 것도 없는데 오셨습니까? 드릴 게 있을 때에, 오시라고 할 때에 오세요." 내 말이. 그러면서 그 시계를 집어 줬겠다. 그랬더니 그 시계를 얼른 받아 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이거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싱긋이 웃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웃었지, 뭐. 허허허. 그랬더니 영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 놔도요.

그랬듯이 사람이 사람이니만큼 마음이라고 마음! 벌써 문에 들어올 때에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깐, 나를 버리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거야. 아무것도 줄 게 없고 가져갈 게 없어도, 악이나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하면 그거 좋을 게 뭐야?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8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바닷속 거북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장승 노래 부르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리!

신간

대행선사 게송 · 선시 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

본 책자에는 선사께서 법회 때 읊으셨던 게송, 선법가 가사로 만들어진 선시, 편지글 속의 게송과 함께 친필 원고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가격: 20.000원 336쪽 엮은이_(재)한마음선원 출판부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